

# 절 수행 '확산'

## 사찰·단체 '3천배 철야정진' 잇달아 참회·하심 공부...건강 증진 효과도

아침과 자만심을 버리고 정진한 참회를 통해 하심(下心)을 익히는 '절' 수행. 건강증진은 물론 신구(身心) 3업을 정화해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행이다. 매일 108배는 물론 3000배, 10000배 등 최근 각 사찰과 수행단체를 중심으로 '절' 수행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10월27일 서울 강남 봉은사. 이날 철야로 봉행된 '3000배 철야정진 법회'에는 1만여명의 불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매년 한 차례씩 봉행해오고 있지만 올해 법회는 대웅전, 법당, 선불당, 미륵전 등 모든 전각에 신도들이 짝꿍 들어차고 경내 마당마저 비좁을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특히 주지 원혜스님을

비롯한 18명의 사중스님과 22명의 종무원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 불자들도 2000여명 이상 동참해 3000배를 마쳤다.

더욱이 법회가 시작되자 3시간쯤 지난 밤 10시경 보습비가 내렸지만 단 한 사람의 동요도 없었다. 힘들어하는 불자들은 있어도, 포기하는 불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법회가 끝날 무렵인 다음날 새벽 4시, 일부 불자들은 방석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신이 해냈다는 환희심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조계사도 사중 스님 12명과 종무원 50여명, 신도 300여명은 10월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매일 오전 108배를 실시했다. 108배를 하고 있는 조계

사 사부대중들은 1배마다 100원씩을 적립했다. 종무원도 종무원 이전에 조계사의 신도임을 강조하며 일주루 건립불사에 동참한다는 취지이다.

제주 남국사도 10월 20일 제5회 '3000배 참회 대법회'를 개최했으며, 성철스님문도회와 해인사 백련암은 10월 29일부터 1주일간 성철 스님 열반 8주기를 맞아 백련암 고심암에서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제로 7일 7야 7000배 참회기도에 들어갔다.

대구 관음사 역시 3000여명의 불자들이 98년 음력 10월1일부터 2008년 음력 10월1일까지 '불교 중흥, 나라 발전, 자아성찰 발원' 주제의 10년 기도정진 결사를 통해 각자의 근기에 맞게 108배,



▷10월27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1만여 불자들이 참여한 '참회와 서원을 위한 3천배 철야정진 법회'.

108배 기도를 하고 있다. 특히 강진여성(55) 보살은 '불교중흥과 불교유치원 건립'을 발원하며 3년째 매일 3000배 기도를 올리고 있다. 남편 역시 강 보살의 간절한 원력에 힘입어 매일 1천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직장직능 불자모임의 절 수행도 확산되고 있다. 과천종합청사 불자회와 건교부불자회는 10월 24일 양행 법당에서 3000배 철야정진 법회를 가졌다. 수협불자회와 경찰청불자회 등 많은 직장 불자회와 사찰신도회, 성지순례단들은

수시로 법당정사에서 절 하는 법을 배워 자체적으로 108배, 1080배, 3000배 기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낸 청전스님(법왕정사 주지)은 "호흡에 맞춰 신구의 3업을 정화해 가는 절수행은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는 물론 열불, 독경, 간경 수행을 위한 기초수행이 된다"며 "절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아 많은 사찰과 단체들이 채택하는 수행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김재경 기자

## "순천골프장 건설 보조국사의 土橋 훼손 불보듯"

### 불교환경연대 정밀조사 요구

전남 승주군 송광면 복다리 송광사 인근 4km에 건설중인 순천골프장에 대한 불교환경연대와 송광사, 환경운동연합의 현장조사 결과 송광사 수행환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는 보조국사가 조성한 것으로 구전되는 7개의 토교(土橋, 흙다리) 흔적이 남아있어 보다 정밀한 문화재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연면적 42만평 규모의 순천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식수오염, 산림파괴는 물론 보조국사의 일화가 남아 있는 유적인 토교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토교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정밀히 따져 본후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보성레저산업은 "순천골프장 건설사업은 이미 92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전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지난 9월 공사를 재개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보조국사가 만들었다는 토교 역시 전남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템플스테이 예산 확충"

### 이미경의원, 문광부에 요구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2일 문화관광상임위원회 예산관련 심의에서 문화관광공부에 대한 재차질의(4번째)를 통해 "템플스테이 활용방안과 예산지원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월드컵을 대비한 임시변통 숙박대책이 아니라 일상적인 체험관광 수용을 위한 숙박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월드컵의 개최가 최대 과제이며 템플스테이 사업을 통해 한국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 김태복사건 공판 군법무관

### 뇌물 수수혐의 구속

군 법무관 시절 편파적인 태도로 김태복 장군 공판을 담당해 불교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고진상 변호사(40)가 10월 28일, 군 법무관 시절 업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검의 장부지청 김환 검사는 "고씨가 육군 모부대 법무참모(당시 육군 소령)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윤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국방부 소유토지 2천5백평과 자신의 토지를 교환해 달라며 당시 소속부대 하사관 박모씨를 통해 건넨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일기자

## 전국 442개 기차역서 '자비의 말씀' 읽는다

### 풍경소리, 게시판 설치 승인받아

철도청 소속 전국 442개 역사에 풍경소리의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설치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운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이사장 성운)는 10월 31일 철도청으로부터 전국 철도 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에 게시

### 판 설치를 승인 받았다.

풍경소리는 전국의 철도 역사에 게시판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설치 대상 역사 인근에 개원된 사찰 중 게시판 설치를 후원할 '협찬 사찰'을 찾는 한편 게시판의 포스터를 교체하고 청소를 책임질 관리 책임자인 '포교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02736-5583 오종욱 기자)

## '불교 아카데미' 발족

### 10월31일, 후원의 밤도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0월31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불교 아카데미 발족식 및 재가연대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조계종중앙총회 부의장 청화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참여불교운동의 확산을 발원했다.

불교아카데미 윤현수 이사장은 이날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불교아카데미는 유능한 불교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그 인재들이 교계와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역할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주스님은 축사를 통해 "재가연대가 인권, 통일, 세계평화, 민족문제 등에 더

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10월 30일까지 '2020불교미래 양성기금'으로 총 1억여원을 약정받고, 연말까지 2억원의 모금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담반대 국민행동' 창립

'담반대 국민행동' (상임대표 최열)은 10월 29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환경단체 회원, 지역주민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 반대 국민행동 창립선언 및 담 예산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불교환경연대,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원불교천지보존회 등 23개 단체와 15개 지역대륙회가 참여한 담반대국민행동은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필설행

## 7일 경불련 10돌 토론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훈)은 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불련 10년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창립 10주년기념 토론회를 갖는다.

이어 경불련은 13일 오후 6시30분 종로구청 강당에서 경불련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 월정사 석탑서 나온

### 유물 13점 '보물신청'

### 강원도, 문화재청에

강원도는 오대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내 사리장엄구에서 발견된 은제도금여래입상 등 유물 9건 13점을 보물로 지정해 줄 것을 10월 31일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이들 유물은 1970년 팔각구층석탑 해체 복원시 5층 지붕돌(육계석)과 1층 몸돌 위쪽의 사리장엄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난해 각각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사리장엄 연구에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권헌진 기자

## 문화재관람료 징수철회

### 대한산악연맹 11일 집회

대한산악연맹(회장 김상현)은 11일 오전 10시 계동산 국립공원에서 문화재관람료징수 반대집회를 열고, 문화재관람료 불법·부당징수에 대한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산악연맹 산하 문화재관람료 불법·부당징수 반대운동대책위원회는 10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유지, 보수 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문화재 관리를 원하는 자에게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 북녘동포 지원물품 상차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총재 정대)는 10월 29일 총무원 청사 앞에서 봉선사 주지 일련, 법주사 주지 지명, 조계종 총무부장 원태스님 등 20여명의 교구본사 주지와 총무원 소임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차 북녘동포돕기 지원물품을 차에 싣는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하는 생활용품은 1억2천만원 상당의 콘테이너 한대 분으로 내의, 겨울외투, 양말, 치약 등 34,000여 종이다. 대북지원물품은 10월 31일 인천항을 통해 정기선박편으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보내졌다.

김원우 기자

# 장인의 혼이 담긴 목조각 작품

## 성불 조각원에 있습니다

-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연 합니다.
- 사찰에 필요한 모든 목조각을 주문 제작 합니다.

**취급품목 : 목불상, 사천왕, 16나한, 500나한, 법상, 가마, 불전함, 경상 등**

**문의전화: 033-263-1102**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